

상징주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실체
- 랭보의 '깜짝 놀란 아이들' 시어를 중심으로 -

Illustration of symbolism made reality
- Rimbaud's 'Les effares' around poem word-

이 고 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Lee, Goeun

Chung ang University Ph.D course visual communication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상징주의 이해와 분석

- 2-1. 상징주의의 시대적 배경
- 2-2. 상징주의의 특징

3. 랭보 시의 이해

- 3-1. 성장과정과 인격형성
 - 3-1-1. 랭보의 생애
 - 3-1-2. 사회적 영향
- 3-2. ‘깜짝 놀란 아이들’의 상징성 분석

4. ‘깜짝 놀란 아이들’의 시각화

- 4-1. 표현의도
- 4-2. 작품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내적 상상력의 힘으로 완성한 랭보의 시속에 나타난 여러 상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인의 자아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인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연구자의 작품 창작에 영감을 주며 주관적 상상력과 융합되어 새롭게 재탄생 되었다.

불행한 현실 속에 가상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괴로워하는 내면상태의 시각화를 모색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형태는 현실적 대상의 재현이 아닌 랭보 시속에 나타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주관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징적 형태이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각디자이너로서의 작가적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데 랭보의 시적 상상력은 논문 연구자의 마음에 동화되어 다양한 시각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랭보, 상징주의, 시

Abstract

I intend to examine various symbolic meanings appeared in Rimbaud's poetry completed by power of imagination, provide an opportunity for self-reflection to modern people and seek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Happiness' and 'unhappiness' felt by poets gives inspiration to the creation of works and reborn by being fused with subjective imagination. Miserable appearance and tormented inner reflection of children soaked in virtual euphoria in miserable reality have been visualized. The forms appeared in the works of the researcher is not the reproduction of realistic subject but the symbolic form created by subjective imagination with the image of Rimbaud's poetry as motif.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erritory of an artist as visual designer who requires infinite imagination and creativeness, the poetic imagination of Rimbaud was assimilated in the heart of the researcher of a paper and gave an opportunity for the various visual expressions and self-reflection on the nature of human existence.

Keywords

Arthur Rimbaud, Symbolism, Poem

1. 서론

1.1. 연구목적

현대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제 모든 문화는 컨버전스 되어가며 서로의 영역에 침투되어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과학, 산업의 발달은 현대인들 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반면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오늘날의 관심사는 랭보 시 속에 상징의 형태로 내포되고 있으며, 랭보의 시학은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거쳐 삶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인간 내면의 모습과 자아성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인 들은 발전되는 사회 속에 점점 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극단적으로는 회의주의로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랭보의 시에 나타난 상징과 해석을 통해 시각표현 의 소재로 이용함으로써, 현대인의 고독을 나타내고 자 하였다.

이에 내적 상상력의 힘으로 완성한 랭보의 시속에 나타난 여러 상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인의 자아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상징주의 시인으로 유명한 랭보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상징주의의 이해와 분석을 해봄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상과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랑보시의 원천인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랭보 시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논문 연구자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이론적인 틀을 마련해 주었다.

랑보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랭보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성장과정과 인격형성의 틀을 마련해 주었던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자가 시각화할 ‘깜짝 놀란 아이들’에 대해서 시어를 중심으로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하고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표현의도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문헌 연구에 있어서는 랭보시의 문학적 접근을 위해 국내외 불문학계의 논문과 학술지등을 참고 하였다.

2. 상징주의의 이해와 분석

상징은 인간만이 갖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 변화되어 왔다. 상징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다의적이고 모호성을 지닌다.(임채형, 2009)

상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상징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징을 의미하는 Symbol은 ‘함께 던지다’의 뜻인 Symballein에서 유래한다. 이 말의 어원은 ‘하나로 맞추어보다, 비교해 보다’라는 뜻이 들어 있고 ‘표시, 표지, 표징, 기호’ 등의 의미를 지닌다. 상징은 하나의 물건이란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 “다른 모든 이미지들과 같은 하나의 이미지”이며, 상징은 “유추관계나 관습에 근거하여 또 다른 실체를 표상하는 어떤 실체나 개념이나 대상이나 인물, 혹은 어떤 이야기를 가리키기도 한다”(황설중, 2009)

헤겔이 말했듯이 상징은 본질적으로 다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은 대상을 은유하거나 암시할 뿐 구체적으로 관념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상징은 기호와 의미간의 유추관계를 빌어서 다른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은 불완전

하며 의미에로의 지향을 꿈꾸고, 어떤 의미 내용을 암시하거나 함축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기호로부터 의미로까지 도달하기 위해 기호로써 지향하는 상징의 필연적인 우연성이 존재하게 된다. 상징은 유추적 관계를 빌어 존재본질, 현상과 관념, 구체성과 추상성간의 지향, 전이 초월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역동적이다.(김기봉,1999)

상징주의의 이해와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상징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상징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살펴볼 랭보시학 이해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상징주의의 시대적 배경

19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과학만능사상과 실증주의 영향아래 상징주의가 대두되게 된 것은 고답파,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가치의 전도와 퇴조에 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가 정신적, 역사적인 격변을 체험하면서 발전시킨 진보적인 사상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경제발전과 유토피아 건설의 가능성을 안겨주었다.

1870년 프러시아 전쟁의 참패이후 국민들의 낙관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게 했던 현실학, 실체학으로서의 사회주의 과학만능사상, 실증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다.

가치적 붕괴에서 오는 정신적, 이성적 자아의 상실로부터 회의사상, 퇴폐주의, 무정부상태 등으로 새로운 가치체계와 문학이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상징주의 이론이다.

19세기 문예사조를 개관할 때 ‘낭만주의’가 19세기 전반을, 19세기 중반을 약 30년간 ‘사실주의, 고답파’ 가, 19세기 후반 30년을 ‘상징주의’가 주도한다.

낭만주의는 개인적, 주관적 낭만주의에서 사회개조를 주장하는 사회적 낭만주의로 등을 돌리면서 문학자체를 이념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키면서 상징주의와 멀어지게 된다

고답파 시인들에게 예술은 객관적이고 무감동적이어야 하고, 비개인적 이어야했다. 이러한 냉철한 판단, 정확한 표현, 무감동성, 비개성성은 사실주의와 태도를 같이 하면서 상징주의와 대립된다.

상징주의는 현실주의에 대항하여 이상주의의 가치를 들고 태동하게 된 것이다. 상징주의는 본질상 현대에 반대하며 관념적 이상주의 성격의 띠게 되었다.

2.2 상징주의의 특징

1891년 말라르메는 상징의 신비란 “영혼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어떤 대상을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 대상을 선택하여 일련의 해석과정을 거쳐서 영혼의 상태로 이끄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상징주의는 현실, 현상, 사실의 세계를 끊임없이 초월하여 영혼의 상태와 이상 절대세계를 추구하는데 있다.

언어로부터 논리성, 일상성, 산문성, 서술성을 떼어낸 다음 상징적, 암시적, 함축적, 본질적인 시어를 탐마해 뉘으로써 언어로 하여금 순수성과 환기성 속에 ‘언어의 연금술’ 주장하고, 순수하고 본질적인 시어를 수단으로 하여 현상 및 존재 속에 관념 및 본질이 절대 불가결한 상징의 이론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결합 및 통일을 이룩하는 교양의 미학을 정립하고 시로 실현 하는 데 상징주의 문학의 이상이 있다.(김기봉, 1999)

이렇듯 상징주의는 감성계와 경험계를 모두 포괄하면서 이념이 관념의 세계에 도달해 있다.

상징주의는 현실을 가상세계로 보며 현실 속 감성적, 감각적, 인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징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징주의는 대상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그것의 가능한 진실인 것을 밝혀내기 위해 상징적이거나 암시적인 ‘시적언어’를 내세운다. 우리의 인식과 사유는 상상력으로 인해 현실세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가상성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해준다.

둘째, 상징주의는 ‘절대적 세계’를 열망함으로써 시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는 모든 현상이 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근원을 관념(idea)라고 하였다. 이로써 ‘관념’의 개념은 플라톤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상징주의는 철학의 기초를 이원론에 두고 현상과 실체, 물질과 정신, 존재와 본질, 실체와 관념, 현실과 이상 등 상호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철학으로부터 사상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주의는 ‘관념’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를 전일체로 발견한 다음 시적 창조를 통해 ‘관념’을 개체 대상의 존재에 접합시킴으로써 이원적인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상징주의 시에 있어 언어는 일상어와 다른 이차원적 언어인데 이미지의 매개체인 시어들은 대상을 환기시키고 유추함으로써 마음속의 이미지를

독자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관습적인 언어를 정신의 필요에 의해서 영혼의 상태를 그려낼 수 있도록 정화하는 일, 본질로 환원된 언어를 통하여 언어와 정신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상징주의 시언어의 역할이었다.

넷째, 상징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유추이다.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시하거나, 대상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 함축적이고 자율적 언어를 벗어나 내면적인 정신상태를 비유적으로 표상하게 된다. 상징주의 시어는 함축적이고, 다의적이며, 더욱 심오하고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더하고 있다.

‘상징적 유추’는 두 대상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상징을 활용하는 유추이다. 여기서 상징이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시키거나, 구체화되어 나타내는 것이다. 현실적 유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 꿈같은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유추방법을 쓰기도 한다.(김경식, 2001)

이렇듯 상징주의의 특징은 정신적인 자유와 이상에로의 끊임없는 추구에 있는 것이다.

정신은 관념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정신은 그것이 지각하는 관념들 로 환원되거나 그것 들 속에 포함될 수 없다. 정신은 능동적이며 생산적이다.(황설중 2009)

상징은 무엇인가를 대표하며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구체적인 사물에 추상성을 제공한다.

프로이트와 융으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에서 상징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집단무의식을 표현하는 한 도구로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사회학에 있어서도 상징은 인간이 서로 자신의 생각이나 규범을 전하고 발전시키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임채형, 2009)

이로써 우리는 상징주의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는 랭보시학의 이해에 있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다.

3. 랭보시의 이해

모든 감각의 착란을 통해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였던 방랑시인 랭보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짧지만 프랑스 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랭보시학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3.1 성장과정과 인격형성

인격의 형성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예술가적 기질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작가와 작품의 이해를 위해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3.1.1 랭보의 생애

랑보는 프랑스 북서, 벨기에의 국경에서 가까운 샤를르빌의 군인가족으로서 비교적 원만치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광신적 카톨릭 신자로서 역세고 잔소리가 심하며 다정함이 없는 농부인 어머니 밑에서 프랑스 특유의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랭보는 교육에 반발하며 민간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채 유년시절을 보낸다. 이 당시 ‘일곱살의 시인들’, ‘깜짝 놀란 아이들’ 이란 시에서 시인의 유년시절을 볼 수 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가정의 어려운 속에서도 중학 시절 라틴어 시를 비롯한 모든 과목을 마스터하고 아카데미 콩쿠르를 수상하는 등 시에 대한 탁월함을 보여준다. 교사 장발은 랭보에게 세계의 새로운 지식과 문명과 혁명에 눈을 뜨게 해준다.

1870년부터 71년 초까지 이어진 혁명의 시기, 꿈을 찾아 파리로 간 랭보는 좌절을 몇 번이나 맛보며 수차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의지를 더욱 불태웠고 처음으로 시작 활동에 전념하도록 만들었다. 그해 가을 시작의 부편 꿈으로 찾아든 파리에서 신경향의 상징주의 시인 폴 베를렌과의 만남으로 랭보의 시작활동은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18세에 쓴 작품 ‘취한 배’나 ‘모음들’이 이때 쓰여졌다. 이후 ‘지옥의 계절’을 끝으로 20년 동안의 짧은 시작활동을 중단하고, 베를렌과도 결별하고 다른 세계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

1880년에는 일자리를 찾아 홍해의 모든 항구를 찾아다녔으며, 그 후에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교역에 종사한다. 1891년 관절염으로 프랑스에 돌아오며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한 채 37세로 사망한다.

3.1.2 사회적 영향

19세기말 프랑스는 프러시아 전쟁에서 참패한 후 과학적 낙관주의가 흔들리고 정치, 사회, 등에 걸쳐 정신적 공황에 휩싸이게 된다.

사회전반에 팽배한 위기감과 불안의식은 이상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 등을 부활시키게 되는데, 이는 19세기 대부분을 지배해온 사회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에 대한 반발로 영혼의 상태와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의 동경에서 비롯되었다.

낭만주의의 개인적 감상에 대한 탐닉은 대중들의 멸시를 받게 되었고, 고답파의 예술적 관심은 객관 세계, 현실세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적 본질에 관한 사랑과 꿈, 신비, 상징 등에 호감을 갖기 시작한 대중들에게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사실주의, 자연주의도 그 인식의 기초가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 있고, 예술이 외적 현실만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문학과 미술계에서도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에 의존해서 감각의 해방을 추구함으로써 인간본연의 감정과 내재된 관념을 찾으려 했으며, 비물질적 세계를 동경하고 개인적인 충동과 경험을 중시하여 도덕성에 개의치 않고 더욱 내성적, 탐미적으로 빠지게 된다.(이고은, 2003) 이러한 사회적 정신적 공황 속에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회의사상, 퇴폐주의 자아 분열을 초래하는 세기말적 병리현상으로 인한 무정부상태를 맛보게 되었고, 랭보도 이 세기말적 병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현실의 삶속에서 이상에로의 일탈과 반항을 꿈꾸었다.

랑보는 자신을 구속하는 일상적인 삶과 가정, 사회 또는 사랑 등 이미 정립되어온 전통적 규범의 현상들로 인식하고 이에 과감하게 항거하여 타파하고자 하였다. 랭보의 반항과 파괴는 자신의 억압과 구속의 상징인 가정, 유럽의 현실로 대표되는 기존사회, 기독교로 대표되는 종교, 전통적 정신체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펼쳐진다. 랭보는 탁월한 시적 인식력과 감수성, 상상력과 직관력, 도창적인 창조력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체계로 시화함에 있어서까지 ‘신화’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의 천재성을 발휘한 시인이었다.(김기봉, 1999)

3.2. ‘깜짝 놀란 아이들’의 상징성 분석

미지의 도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천재적 시인 랭보의 시를 분석하기엔 이 짧은 논문으로 충분하지 못함이 아쉬울 따름이다.

천재시인의 끊임없는 시적투쟁, 언어를 연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관습적이고 진부한 언어를 매개로 사물에 접근하였던 전통적인 창작태도에 대한 정면적인 거부‘모든 감각기관의 뒤틀린 착란’을 통해 드러나는 새롭고 창의적인 실체를 보여주었다 했던 시인의 노력은 20세기를 혁명적으로 여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되어지고 있다.(김기국, 1999)

랑보의 짧은 시인의 삶 중 초기작품에 해당하는 ‘깜짝 놀란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텍스트의

분석을 하였다. 시를 해석하고 상징들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과정은 시의 의미작용과 추상적 구조를 시각화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깜짝 놀란 아이들(Les effares)

눈 속에 안개 속에
불 밝힌 커다란 환기창 아래 검은 그림자,
엉덩이를 동그랗게 내놓고

다섯 아이 무릎 꿇고 있네, 가여워라!
빵집 주인이 큼직한 갈색빵
굽는 걸 보고 있네....

그가 힘센 팔뚝으로 거무스레한
반죽을 이겨서 활활 타오르는 화덕에
넣는걸 보네

아이들 빵 맛있게 익는 소리 듣네
빵집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옛 노래 부르네

어머니 가슴처럼 따뜻한
붉은 환기창에서 나오는 냄새에
다섯 아이 웅크린 채 꼼짝 않네.

자정이 울리고
반짝반짝 노랗고 잘 익은
빵을 꺼낼 때

연기로 가득한 대들보 아래
향기로운 빵 껍질과 귀뚜라미
노래할 때

따뜻한 구멍에 삶의 입김 불어 넣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도
아이들 낮은 황홀하네

아이들 살아 있음을 느끼네
온통 서리를 맞고도 불쌍한 아이
- 거기 모두 있구나

발갣게 언 어린 콧잔등,
창살에 바짝 대고, 구멍사이로
무언가 흥얼 거리네

기도 올리듯, 아주 낮게...
다시 열린 하늘의 빛 향해
몸을 구부렸기에,

-아주 많이, 반바지 구멍 나고,
빼죽 나온 흰 셔츠가
겨울바람에 떨리네...(랭보 저, 함유선 역, 2003)

어두운 곳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빵집 안의 화덕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는 모습, 빵의 향기와 노랫소리, 삶의 행복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아이들은 결코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다는 불행한 현실을 독자에게 일깨워 준다. 놀란 아이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대상을 바라보고 또 가질 수도 없는 대상을 인지하는 이 비극적 현실은 더 없는 고뇌와 실망을 독자에게 전해주며 바로 이점이 시인이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에게 주고자 했던 본질적 목적인 것이다.(김기국, 1997)

이 한 편의 시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 내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텍스트의 의미파악과 분석을 해보았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대립적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는 시어를 나누어 살펴보고, 시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각각의 텍스트의 분리를 통해 독자들의 능동적 글 읽기를 도왔다. 같은 이미지를 내포하는 시퀀스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어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역동적인 문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시어와 문맥의 구조에 따라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랭보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녹아 있는 ‘깜짝 놀란 아이들’은 자아의 지나간 추억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치 한 편의 슬픈 동화처럼 이어지는 시의 흐름은 시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독자에게 다가간다.

좀 더 쉽게 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텍스트를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행복으로 나타난 시표현

불 밝힌 커다란 환기창 / 큼직한 갈색빵/ 빵 맛있게 익는소리 / 힘센 팔뚝/ 환하게 웃으며 옛노래 부르네/ 가슴처럼 따뜻한 / 붉은 환기창/ 나오는 냄새 / 반짝반짝 노랗고 잘 익은 빵 / 향기로운 빵 껍질 / 귀뚜라미 노래할 때/ 따뜻한 구멍 / 삶의 입김 / 아이들 낮은 황홀하네 / 무언가 흥얼 거리네 / 다시 열린 하늘빛

불행으로 나타난 시표현

눈 속에 안개 속에 / 검은 그림자 / 엉덩이를 동그
랴게 내밀고 / 다섯 아이 무릎을 꿇고 있네 / 가여
워라 / 다섯 아이 웅크린 채 꼼짝 않네 / 자정이
울리고 / 온통서리를 맞고도 불쌍한 아이 / 발갱게
언 어린 콧잔등/ 창살에 바짝 대고 / 아주 많이 반
바지 구멍나고 / 비쪽 나온 흰 셔츠 /겨울바람에
떨리네

각각의 텍스트를 ‘행복’과 ‘불행’이라는 대립적 이미
지를 통해 분류해 보았다. 한 편의 시 속에 다양한
시적 표현이 돋보인다.

2,3연을 살펴보면 ‘활활 타오르는 화덕’, ‘빵 맛있게
익는 소리’라는 텍스트를 통해 공감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7연의 ‘향기로운 빵’은 시각이미지가 후각으로
이어지면서 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과 코를 자극
한다. 8연의 ‘따뜻한 삶의 입김 불어 넣을 때’ 삶의
입김은 행복이면서도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아이들
의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황홀하네’로 표
현되는 정신적 상태는 시인이 상상력이 빚어낸 환상
을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빵이 구워지는 행복
한 모습을 보며 비록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지만 자
신들의 먹는 모습을 상상한다. 10연의 ‘발갱게 어린
콧잔등’은 1연의 ‘엉덩이를 동그랴게 내놓고’와 같은
맥락으로 눈 속에 안개 속에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
들의 현실을 나타낸다

환상에 빠져 구멍사이로 무언가 훔얼거리는 아이
들의 모습은 행복감을 표현해 주는 동시에 슬픔과
불행을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 완전한 현실로 돌아
와 추운겨울 바람에 얹은 셔츠의 구멍 난 바지를 입
고 행복한 빵 굽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지켜본 아이
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4. 놀란 아이들의 시각화

먹음직스런 빵을 결코 소유할 수 없고 바라보기만
했던, 안타까움, 불행한 현실을 행복한 상상으로 치
닫는 환상적인 내용, 한 편의 서정적인 동화를 보는
듯한 ‘깜짝 놀란 아이들’을 연구자의 상상력으로 일
러스트레이션 창작을 시도하였다.

4.1. 작품표현 의도

시인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연구자의 작품 창
작에 영감을 주며 주관적 상상력과 융합되어 새롭게

재탄생 되었다.

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아닌 시의 내
용을 주관적으로 재해석 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형태는 현실적 대상의 재
현이 아닌 랭보 시속에 나타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주관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징적 형태이다. 가
상의 현실 속에 행복감에 젖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
과 불행한 현실 속에 괴로워하는 내면상태의 시각화
를 모색하였다.

4.2. 작품 표현 분석

모든 작품은 컴퓨터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
는 시각표현의 디지털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 추운 겨울의 이미지를 죽어가는 나무의 모
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삶의 새 생명을 잉태하듯 추
위 속에 나무는 본래의 푸르름을 은폐한 채 눈 속,
안개 속에 서 있다. 창문 속에 보이는 빵 굽는 행복
한 모습은 비록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지만 향기로
운 빵 냄새와 함께 아이들을 행복감에 젖게 한다.
이러한 시적 표현을 색채이미지가 돋보이게 표현하
였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그림2], [그림4],
[그림7]의 모습은 직접 아이들을 표현함으로써 시적
표현을 그대로 수용 하였는데 마치 한편의 ‘슬픈 동
화’를 연상케 하는 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이러한 표
현은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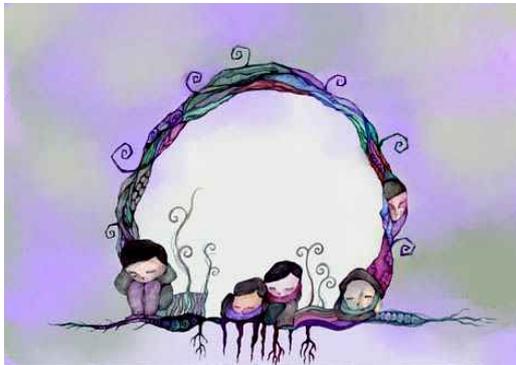
비록 시적화자가 다섯 아이는 아니지만 시의 주체
가 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에 있어 중요한 틀을 마련해 주었다.

유기적인선과 비정형성의 형태에서 오는 따스함
과 불안감은 이 시에서 보여주는 ‘행복과 ‘불행’이라
는 극단적인 내용을 시각화함에 있어 연구자의 상상
력이 빚어낸 결과이다. 인간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직선체계보다는 유기적인 곡선체계를 이용하였
다. 주로 원색적인 색보다는 파스텔 톤의 여러색을
혼합하여 색채를 통해 가상의 환상에 젖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디찬 현실을 표현하였다.

인체의 혈관과 세포조직을 주관적으로 형상화하
여 인간내면의 깊숙이 뿌리 내린 행복과 불행을 나
타내고자 하였다. 일련의 스토리를 한 컷 한 컷 표
현하면서 연구자가 의도한 것은 작품에 대한 설명
없이도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느껴지는 삶의 희망에
대한 목마름과 불행한 현실 속의 자아의 모습이 투
영된 결과물이다.



[그림 1]
 눈 속에 안개속에
 불 밝힌 커다란 환기창 아래 검은 그림자,
 엉덩이를 둥그랗게 내놓고



[그림 2]
 다섯 아이 무릎 꿇고 있네, 가여워라!
 빵집 주인이 큼직한 갈색 빵
 굽는 걸 보고 있네....

그가 힘센 팔뚝으로 거무스레한
 반죽을 이겨서 활활 타오르는 화덕에
 넣는걸 보네



[그림 3]
 아이들 빵 맛있게 먹는 소리 들네
 빵집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옛 노래 부르네



[그림 4]
 어머니 가슴처럼 따뜻한
 붉은 환기창에서 나오는 냄새에
 다섯 아이 웅크린 채 꿈쩍 않네.



[그림 5]
 자정이 올리고
 반짝반짝 노랗고 잘 익은
 빵을 꺼낼 때

연기로 가득한 대들보 아래
 향기로운 빵 껍질과 귀뚜라미
 노래할 때



[그림 6]

따뜻한 구멍에 삶의 입김 불어 넣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도
아이들 낮은 황홀하네



[그림 7]
아이들 살아 있음을 느끼네
온통 서리를 맞고도 불쌍한 아이
- 거기 모두 있구나
발갱게 언 어린 콧잔등,
창살에 바짝 대고, 구멍사이로
무언가 흥얼 거리네



[그림 8]
기도 올리듯, 아주 낮게...
다시 열린 하늘의 빛 향해
몸을 구부렸기에,



[그림 9]

-아주 많이, 반바지 구멍 나고,
빼죽 나온 흰 셔츠가
겨울바람에 떨리네...

5. 결론

시적 상상력과 연구자의 주관적 상상력이 한 컷 한 컷 화면으로 되살아남으로써 독자들의 능동적인 시 읽기 참여를 가능케 하였고 연구자 스스로에게도 앞으로의 작품진행에 다양한 영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상징주의 시인으로 대표되는 랭보시학의 이해를 위해 전체적으로 상징주의를 살펴본 것은 랭보 시편 너머의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었다. 반항과 방랑의 시인 랭보의 삶 속에 우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유년시절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깜짝 놀란 아이들'의 시각화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능동적인 시 읽기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여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컨버전스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이해능력과 높은 사고의 유연성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년이라는 짧은 시 작업 중 랭보의 초기 시에 해당하는 '깜짝 놀란 아이들'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모습과 현실에 반항하는, 현실을 초월하여 절대적 세계에 다가가려던 랭보시학의 끊임없는 이해와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상상력의 모티브로 삼아 작품 활동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시를 통한 시각표현의 모티브를 찾는 것은 연구자가 앞으로도 독자적인 상상의 세계와 표현형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경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국. (1997). 랭보의 운문시를 통한 기호학적 글 읽기, 경기대학교, 비교문학 연구소.
- 김기국. (1999). 기호의미론과 랭보의 텍스트분석,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28집.
- 김기봉 저.(1999). 프랑스 상징주의와 시인들, 조합공동체소나무.
- 김경식. (2001). 시각적 유추를 통한 창의력 개발에 관한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청구논문.
- 랑보 저, 함유선 역. (2005). 밝은세상.
- 이고은. (2002). 보들레르 시에 나타난 '우울'을 모티브로한 시각표현 연구, 성신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채형. (2009). 광고 디자인에서 그림자의 상징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디자인 포럼 제 23호.
- 황설중. (2009). 인식론-우리가 세계를 정말 알 수 있을까?, 민음인.